

『濟衆新編』의 인용방식에 대한 연구

지창영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A Study on Citation Methods of Jejoongshinpyeon

Ji Chang Young

College of oriental medical Univ. Sangji

Jejoongshinpyeon was published in 1799 by 康命吉 upon receiving orders from the king. This book is a critical accedence of Treasured Mirror of Oriental Medicine and aims to enunciate summarized medical knowledge. Through examining citation methods in Jejoongshinpyeon,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reached: First, citation methods displayed in Jejoongshinpyeon is largely based on Treasured Mirror of Oriental Medicine. Second, the specific method of citing Treasured Mirror of Oriental Medicine involves collecting and describing annotations from different titles.. Third, Jejoongshinpyeon cites other medical texts by making additions to symptoms or prescriptions not included in Dongeuibogam.

Key Words : Jejoongshinpyeon, Gang Myeong-Gil, Choson dynasty medical text, Dongeuibogam

1. 서론

『濟衆新編』은 정조 23년(1799)에 康命吉이 왕명을 받들어 지은 것이다. 이 책은 이전에 나온 『東醫寶鑑』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것으로서 “번잡한 것을 빼고 부족한 것은 보충하면서 선별하고 알맹이를 추려 정연하게 정리하여 편찬함으로써 비록 벼촌의 사람들도 이 책만 보면 증상에 따라 약재를 쉽게 구하여 쓸 수 있게 하였다.”는 李秉模의 서문에서 알 수 있듯이 요약된 의학적 지식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록에서도 이해 12월 11일에 “『濟衆新編』은 12월 11일에 성립되었다. 上이 春邸에 있어 10년 동안이나

侍湯을 하던 중에 朝夕으로 脈訣과 藥論을 尋繹하여 醫理를 旁究하여 『素問』, 『難經』 등 歷代諸方을 閱覽하였다. 本朝의 醫書 중 오직 許浚의 『東醫寶鑑』이 가장 詳悉하나, 文繁意疊하며 踈漏가 亦多하다. 上이 內醫院에 명하여 諸方을 博探하며 繁을 芟하고 要를 취하여 간간히 經驗方을 附하여 『濟衆新編』 8卷 目錄 1권을 編集케 하였는데, 風寒暑濕으로부터 藥性歌에 이르기까지 무릇 70餘目에 달하였다. 每目에 먼저 脈訣, 形證을 叙하고 다음에는 用藥의 方을 附하여 遐鄉窮村의 民으로 開卷瞭然케 하였다. 다시 鑄字所에 付하여 鈐板印頒하고 內醫院 都提調 李秉模에게 명하여 序를 짓게 하였다.”라는 기록이 나온다.

이 책은 허준의 『동의보감』 중에서 상용의 醫方들

을 발췌하여 風寒, 暑濕, 燥火로부터 內傷, 虛勞, 身形, 精, 氣, 神, 血, 夢, 聲音, 言語, 津液, 痰飲 등 70餘目에 걸쳐 各目的 아래에 먼저 脈法을 들고, 다음에는 그 目에 해당되는 病證을 분류하여 各 病說의 아래에 주로 『동의보감』에서 상용된 方文을 채록하였으며, 곳에 따라서는 內醫의 常用藥方들을 “內局”이라는 이름으로서 기입하였다. 그리고 끝으로는 養老의 篇과 藥性歌의 一篇을 新增하였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濟衆新編』의 인용방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책의 인용방식의 대강을 살펴보고 그 아래에 그 예로서 痰飲門을 분석한 것을 예시하였다.

2. 『濟衆新編』의 의의와 목차

이 책은 『동의보감』의 호변함으로 인해 생겨난 비실용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실용적 의서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편찬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강명길의 발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의서로서는 오직 허준선생이 쓴 『동의보감』이 비록 상세하다고 하나 글이 번잡하고 말이 중첩되거나 증상을 빠뜨린 것이 있으며 지금 쓰이고 있는 처방들도 기록되지 못한 것이 많다. 『내경』에 이르기를 요점을 아는 사람은 한마디로 다 말할 수 있으나 그 요점을 모르는 사람은 매우 산만함 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대(강명길)는 모든 의서들의 요점을 따서 번잡한 것을 버리고 그 요점만을 뽑아 따로 한 책을 저작하라고 하시었다.”⁴⁾

이 책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서(序)

범례(凡例)

총목(總目)

인용제방(引用諸方)

목록(目錄)

卷之一: 풍(風), 한(寒), 서(暑), 습(濕), 조(燥), 화(火).

卷之二: 내상(內傷), 허로(虛勞), 신형(身形), 정(精),

기(氣), 신(神), 혈(血), 몽(夢), 성음(聲音), 언어(言語), 진액(津液), 담음(痰飲).

卷之三: 오장(五臟), 육부(六腑), 충(蟲), 소변(小便), 대변(大便), 두(頭), 면(面), 안(眼), 이(耳), 비(鼻), 구설(口舌), 아치(牙齒), 인후(咽喉).

卷之四: 경두(頸頭), 배(背), 흉(胸), 유(乳), 복(腹), 제(臍), 복(腹), 협(脇), 피(皮), 맥(脈), 수(手), 족(足), 모발(毛髮), 전음(前陰), 후음(後陰), 광란(霍亂), 구토(嘔吐), 해수(咳嗽).

卷之五: 적취(積聚), 부종(浮腫), 창만(脹滿), 소갈(消渴), 황달(黃疸), 해학(核瘡), 온역(瘟疫), 사수(邪祟), 응저(癰疽), 제창(諸瘡), 제상(諸傷), 해독(害毒), 구급(救急), 잡방(雜方).

卷之六: 부인(婦人), 포(胞).

卷之七: 소아(小兒), 두진(痘疹), 마진(麻疹), 양노(養老).

卷之八: 약성가(藥性歌).

발(跋)

특히 이 책은 중국에서 1820년에 보내줄 것을 요청한 이래 1821년, 1844년, 1845년, 1870년에 거듭 요청한 것으로 유명하다.⁵⁾

3. 『濟衆新編』의 의서인용 방식

『濟衆新編』에 인용된 의서는 모두 21종이다. 이 21종의 의서들중 출전을 밝혀놓은 처방부분과 범례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에서는 인용문헌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필자가 의서인용방식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들여서 원래의 출전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인용방식이 굉장히 복잡하여 원문을 완전히 찾아내기는 불가능하였다. 단지, 필자가 출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濟衆新編』을 편찬함에 일정한 규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으로 만족하여야만 하였다. 일정한 규율의 요점은 원문의 대부분이 『東醫寶鑑』의 형식을 빌리고 있다. 단지, 『東醫寶鑑』에서 부족한 부분은 『醫學入門』, 『萬病回春』,

4) 康命吉, 『濟衆新編』, P 584.

5) 홍순원, 『조선보건사』, P 169.

『壽世保元』의 이론과 처방을 이용하였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濟衆新編』의 깊은 내용을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은 『濟衆新編』을 『東醫寶鑑』의 아류서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기가 쉬울 것이다. 특히, 『醫學入門』은 범례에서 말한 ‘補漏’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의서이다. 『東醫寶鑑』과 다른 처방경향이나 변증시차에서 단방요법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萬病回春』과 『壽世保元』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데, 處方의 부분과 藥性歌에서 그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내용을 아래에서 보다 자세히 고찰하도록 하겠다.

『濟衆新編』의 “引用諸方”에서 들고 있는 서적들은 모두 아래와 같이 21종류이다.

- 『靈樞經』(後漢 무렵)
- 『醫學正傳』(1515. 明代)
- 『丹溪心法』(1481. 元代)
- 『萬病回春』(1587. 明代)
- 『壽世保元』(17세기초. 明代)
- 『本草綱目』(1590. 明代)
- 『醫學入門』(1575. 明代)
- 『百代醫宗』(佚失)
- 『痘疹心法』(1568. 明代)
- 『保嬰撮要』(1555. 明代)
- 『痘科彙編』(17세기. 明代)
- 『赤水玄珠』(1584. 明代)
- 『醫方集略』(佚失)
- 『景岳全書』(1624. 明代)
- 『濟陰綱目』(1620. 明代)
- 『得效方』(1345. 元代)
- 『張氏經驗方』(佚失)
- 『趙氏經驗方』(佚失)
- 『黃氏經驗方』(미상)
- 『醫林撮要』(1567. 朝鮮)
- 『東醫寶鑑』(1610. 朝鮮)

위의 의서들을 중에 인용문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중심으로 인용빈도를 조사해 본 결과 『東醫寶

鑑』, 『醫學入門』, 『萬病回春』, 『壽世保元』이 실질적으로 『濟衆新編』의 편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21종의 인용된 의서들은 모두 한번 이상 『濟衆新編』에 인용이 되었지만, 인용빈도가 위의 4종 의서를 제외하고는 거의 1-2회에 그치고 있다. 위의 의서들을 인용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 보았다.

① 처방중에 인용문이 1회인 경우인 의서

『靈樞』, 『濟陰綱目』, 『張氏經驗方』, 『黃氏經驗方』, 『本草綱目』, 『醫方集略』, 『保嬰撮要』, 『痘疹心法』, 『得效方』

② 인용문을 표시한 부분에서 한번도 인용되지 않은 의서

『景岳全書』⁶⁾

③ 이론부분에 인용된 의서

『百代醫宗』⁷⁾, 『趙氏經驗方』⁸⁾, 『痘疹心法』⁹⁾

④ 처방중에 2-6회 사이에 인용된 의서

『赤水玄珠』, 『丹溪心法』, 『醫學正傳』

⑤ 10회 이상 인용된 의서

『東醫寶鑑』, 『醫學入門』, 『壽世保元』, 『萬病回春』

6) 『景岳全書』는 인용문헌을 밝힌 부분에서는 한번도 인용되지 않았지만, 藥性歌의 煙草가 『景岳全書』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7) 『百代醫宗』은 「婦人」 “雞爪風”의 잔주 ‘雞爪風(醫宗)灸法治婦人雞爪風因月家得此症不時而發手足拘攣拳束疼痛其法宜左右穴膝骨兩傍各有一小窠共四穴名曰鬼眼穴各灸三壯其症即愈’에 한번 인용되었다.

8) 『趙氏經驗方』은 「痘疹」의 “痘後瘡”의 잔주 ‘痘靨後聲啞甘桔湯加牛蒡子山豆根菖蒲訶子肉各三分煎服愈’이 인용되었다.

9) 『痘疹心法』은 醫論部分에서는 「痘疹」 “痘後瘡”의 잔주에 두 개의 문장이 인용되었다.

‘『痘疹心法』此毒在腎也痘後失音有二咽痛不能言者此毒氣結於咽喉痰壅作痛而然天花散主之心熱不能言者心中邪熱未徹腎虛不能上接於陽雖有聲而不能言四物湯去芍加麥門白茯’

‘『痘疹心法』云女子種痘經水忽行暴瘡不能言者心主血舌者心之苗血去則心虛心虛則少陰脈不能上榮於舌故猝不語也先以當歸養心湯養心血利心竅待其能言以十全大補湯調之’

이상의 인용문헌 조사를 통하여 필자가 파악한 사항은 편제와 의론부분은 『東醫寶鑑』과 『醫學入門』을 위주로 하였고, 치료의 각론에 해당하는 處方과 藥性歌의 부분은 『東醫寶鑑』을 주축으로 『醫學入門』, 『壽世保元』, 『萬病回春』 등의 의서의 영향을 받은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4. 『濟衆新編』의 ‘痰飲’을 통해 살펴본 의서인용 방식

『濟衆新編』의 의론부분의 대부분은 원래 문장의 출전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여러 의서에서 복잡하게 인용하여 그 원출전을 밝히는 일은 쉽지않다.

‘옛적의 방서들이 비록 많지만, 증상과 의론이 浩繁하여서, 後學들이 그 요점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지금 널리 여러 方書를 참고하여, 번거로운 부분은 없애고 요점을 취하여 症과 脈의 각각의 분류를 세웠다.’¹⁰⁾

이에 보다 명확한 『濟衆新編』의 의서를 인용한 방식을 이해하기 위하여 『濟衆新編』卷二 「痰飲」에 나오는 風痰, 寒痰, 濕痰, 熱痰, 鬱痰, 氣痰, 食痰, 酒痰, 驚痰, 痰厥 등의 문장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風痰

① 多癱瘓奇症頭風眩暈暗風悶亂搖擗闐動 ② 痰色青而光 ③ 風虛三生飲 ④ 風痰散之南星皂角白附子竹瀝

①은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의 風痰의 잔주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②는 『醫學入門』 352쪽 「痰」의 “風靑寒黑濕色白”의 잔주 ‘風痰外感賊邪或腎枯木動或內風鬱熱色靑而光’에서 인용한 것이다.

③은 『醫學入門』 “風靑寒黑濕色白”의 잔주 ‘風虛三生

10) 『濟衆新編』, 凡例, ‘古方雖多症論浩繁後學莫知要領今廣取諸方刪繁取要症與脈各立分類’

飲’에서 인용한 것이다.

④는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의 “痰飲治法”의 잔주 ‘風痰則散之用南星皂角白附子竹瀝’에서 인용한 것이다.

(2) 寒痰

① 骨痺四肢不舉氣刺痛無煩熱凝結清冷 ② 因形寒飲冷色靑黑如灰善唾或喘輕者五積散重者溫中化痰丸 ③ 喜唾痰者胸中有寒或大病後胃冷也理中湯加益智仁二陳湯加丁香砂仁脾虛不能制腎水吐痰唾而不咳八味元 ④ 寒痰溫之薑附官桂半夏

①은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의 “風痰”의 잔주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②는 『醫學入門』 352쪽 “風靑寒黑濕色白”의 잔주 ‘寒痰因形寒飲冷色甚靑黑如灰善唾或喘輕者五積散藿香正氣散重者溫中化痰丸’에서 인용한 것이다.

③은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의 “喜唾痰”의 잔주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④는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의 “痰飲治法”의 잔주 ‘寒痰則溫之半夏乾薑附子肉桂’에서 인용한 것이다.

(3) 濕痰

① 身重而軟倦怠困弱 ② 痰色白喘急 ③ 濕痰燥之蒼白朮茯苓 ④ 二陳湯加蒼白朮

①은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 “濕痰”의 잔주에서 인용함.

②는 『醫學入門』 352쪽 “風靑寒黑濕色白”의 잔주 ‘濕痰或外感濕滯或停飲不散色白喘急’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③은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의 “痰飲治法”의 잔주에서 인용함.

④는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의 “濕痰”의 잔주에서 인용함.

(4) 熱痰

①多煩熱燥結頭面烘熱或眼爛喉閉癲狂嘈雜懊懣怔忡②痰色黃甚則帶血③有痰痰爲本有熱熱爲本宜察之④熱痰清之芩連梔子青黛石膏

①은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 “熱痰”의 잔주에서 인용함.

②는 『醫學入門』 353쪽 “熱黃甚則帶紅些”의 잔주 ‘熱痰因厚味積熱或外感誤溫所致色黃甚則帶血’에서 인용한 것이다.

③은 출전이 불분명하다.

④는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 “痰飲治法”의 잔주에서 인용함.

(5) 鬱痰

①與老痰燥痰同即火痰鬱於心肺久則凝滯胸膈稠粘難咯毛焦色白如枯骨咽乾口燥咳嗽喘促②燥痰潤之瓜蒌仁杏仁五味子天花粉③老痰軟之海石芒硝瓜蒌枳殼便香附

①은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 “鬱痰”의 잔주에서 인용함.

②와 ③은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 “痰飲治法”의 잔주에서 인용함.

(6) 氣痰

七情鬱結痰滯咽喉形如敗絮或如梅核咯不出嚥不下胸膈痞悶

위의 문장은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 “鬱痰”의 잔주에서 인용함.

(7) 食痰

①因飲食不消或挾瘀血遂成窠囊多爲癖塊痞滿②食積痰

消之山查神麴麥芽

①은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 “食痰”의 잔주에서 인용함.

②는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 “痰飲治法”의 잔주에서 인용함.

(8) 酒痰

因飲酒不消或酒後多飲茶水但得酒次日又吐飲食不美嘔吐酸水小調中湯對金飮子加半夏乾葛一錢

위의 문장은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 “鬱痰”의 잔주에서 인용함.

(9) 驚痰

因驚痰結成塊在胸腹發則跳動痛不可忍或成癲癇婦人多有之

위의 문장은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 “驚痰”의 잔주에서 인용함.

(10) 痰厥

①因內虛受寒痰氣阻塞手足厥冷麻痺暈倒二陳湯加桔梗枳實杏仁當歸良姜逐邪木香桂皮②或蘇子降氣湯三生飲

①은 『東醫寶鑑』의 內景篇 卷二 「痰飲」 “痰厥”의 잔주에서 인용함.

②는 『醫學入門』 353쪽 “墜下溫中潤肺家”의 잔주 ‘陽虛腎寒不能收攝邪水冷痰溢上或昏暈夜喘上氣者八味丸三味安腎丸黑錫丹鎮墜之如痰壅發厥者蘇子降氣湯三生飲’에서 인용한 문장이다.

5. 결론

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濟衆新編』의 인용방식

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濟衆新編』의 인용방식은 『東醫寶鑑』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둘째, 『濟衆新編』에서 『東醫寶鑑』을 인용하는 방식은 여러 제목에서 잔주의 내용을 모아서 서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다른 의서를 인용하는 방식은 『東醫寶鑑』에 안나오는 증상을 덧붙이거나, 처방을 덧붙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6. 참고문헌

- 1) 康命吉, 『濟衆新編』, 여강출판사, 서울, 1994년
- 2) 許浚, 『東醫寶鑑』, 남산당, 서울, 1987년
- 3) 虞搏, 『醫學正傳』, 성보사, 서울, 1986년
- 4) 『六典條例』, 경문사, 서울, 1979년
- 5) 『惠局志』, 규장각, 7361-1
- 6) 李穡, 『醫學入門』, 고려의학, 서울, 1989년
- 7) 龔廷賢, 『萬病回春』, 人民衛生出版社, 북경, 1987년
- 8) 유중립, 『山林經濟』, 솔출판사, 1997년
- 9) 丁若鏞, 『의령』, 여강출판사, 서울, 1988년
- 10) 한국사연구회, 『한국사강의』, 한울아카데미, 서울, 1991년
- 11) 金斗鍾, 『한국의학사』, 탐구당, 서울, 1993년
- 12) 三木榮, 『朝鮮醫學史及疾病史』, 大阪, 1962
- 13) 申東源, 『한국 근대 보건의료체제의 형성, 1876-1910』, 서울대 과학철학 협동과정, 1996년
- 14) 金大源, 『18세기 민간의료의 성장』, 서울대 국사학과, 1998년